

알체라, 코스닥 상장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

- ▶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인식 AI(인공지능) 알고리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안전, 핀테크, 환경, AR 등 다양한 산업 적용
- ▶ 내달 5~6일 수요예측 거쳐, 11월 말 코스닥 시장 입성 목표

[2020-10-16]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 알체라(대표이사 김정배)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.

알체라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2,000,000주, 희망 공모가 밴드는 9,000원~11,000원이다.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 원~220억 원이다. 다음달 5일과 6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, 11일과 12일 청약 실시해 11월 말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 맡았다.

2016년 설립된 알체라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이다. 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/편집부터 딥러닝 학습, 인공지능 엔진 최적화, 운용 앱 제작까지 전 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.

알체라의 핵심 기술은 얼굴인식 AI, 이상상황 감지 AI 기술이다. 해당 기술은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했다. 얼굴인식 AI 기술은 흐린 날씨, 복잡한 배경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표정까지 인식 및 판별하는 기술이다. 이상상황 감지 AI 기술은 얼굴인식 AI 기술에서 진화한 기술로 환경의 미세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기술이다.

알체라의 영상인식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. 2016년 스노우 카메라에 적용된 후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, 외교부 여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, 금융권 여권 위조여부 검출 시스템, 신한카드 Face Pay, 한국전력 화재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.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알체라가 유일하다.

알체라 김정배 대표이사는 “알체라의 경영이념은 안전한, 편리한, 재미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”이라며 “보안, 핀테크, 환경, AR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”며 포부를 밝혔다.

한편, 알체라는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성장성 특례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.